

# “올 가을엔 제주로”... 여행마니아들 공략

### 제3회 대한민국 관광박람회 일산 킨텍스서 개막 KITS 조직위-한라일보 등 전국 신문사 공동개최 제주 가을여행 알리는 홍보관에 관람객들 눈길

“올 가을 황금빛으로 출렁이는 제주를 만끽하세요.”  
세계자연유산, 유네스코 3관왕 제주의 가을 전경을 담은 제주 홍보관이 국내외 관광마니아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국내의 최신 여행 정보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제3회 대한민국 국제관광박람회'(Korea International Tourism Show·KITS)가 6일 경기도 일산 킨텍스 제1전시장 2홀에서 막을 올렸다. 이번 박람회는 '여행에 빠지다'라는 주제로 오는 9일까지 3일간 펼쳐진다.

대한민국 국제관광박람회 조직위원회와 한라일보 등 전국 각 지역을 대표하는 신문사들이 참여하는 이 박람회는 각 지역의 여행 및 레저, 관광 콘텐츠 간 교류와 협력, 융합의 장을 만들어 국내외 바이어들에게 보다 다채로운 관광 콘텐츠를 개발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날 개막식에는 최재성 대한민국 국제관광박람회 조직위원장과 임창열 킨텍스 사장, 강만생 한라일보 대표이사 사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박람회는 국내관광관, 국제관광관, 특별관 등으로 구성되며 약 260개 업체, 453개 부스를 선보이고 있다.

국내관광관은 각 지자체가 참여하는 국내 지자체관, 한국 음식 문화를 소개하는 K-푸드관과 동시행사로 진행되는 대한민국 식문화페스티벌, 다양한 테마별 여행지를 볼 수 있는 테마여행

관 등으로 구성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전시관에서는 제주 여행과 관련한 풍성한 정보가 제공된다. 제주 가을 전경을 담은 대형 전광판을 배경으로 한 전시관에는 제주 관광지 정보는 물론, 올 가을 제주에서 펼쳐지는 마라톤 행사 등 제주 여행 꿀팁을 얻을 수 있다. 제주시티투어 버스 안내 전광판도 세워졌다. 현장을 찾은 관람객들을 위한 경품 행사도 진행 중이다. 제주도개발공사는 삼다수 홍보관을 마련했다.

세계 곳곳을 누비는 여행 고수들의 특별한 경험담을 엿들 수 있는 여행

토크쇼와 국내 자유여행, 반려견과 함께하는 여행, 자전거 여행, 자연과 함께 떠나는 힐링여행 등 6개의 테마로 구성돼있는 '여행꿀팁'을 무대에서 만날 수 있다.

최재성 박람회 조직위원장은 개막식 축사에서 "정부의 지원없이 시작한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내실, 콘텐츠, 다양성, 미래지향성을 차곡차곡 확보해나가고 있다. 관광박람회가 더 나아가서 특히 아시아 지역 각국 우호 협력과 관광산업 진흥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서울=부미천기자 bu8385@ihalla.com



국내의 최신 여행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제3회 대한민국 국제관광박람회 개막식 6일 고양 킨텍스에서 최재성 조직위원장 위원장, 임창열 킨텍스 대표이사, 전국 각 지역 언론사 대표이사와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외면받는 '농어촌민박 인증제' 확대될까

### 까다로운 인증조건에 외면하자 CCTV 설치비 지원사업 추진

제주에서 전국 최초로 도입한 '농어촌민박 안전인증제'가 까다로운 조건으로 민박사업자의 호응을 얻지 못하면서 폐쇄회로TV(CCTV) 설치비 지원사업이 추진될 전망이다. 안전인증제에 대한 민박사업자의 관심을 높이고, 범죄예방을 통한 이용객 안전도 확보하기 위해서다.

서귀포시는 내년 예산에 농어촌민박업체 CCTV 설치비 지원예산을 편성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내년 추진하려는 사업량은 농어촌민박 100여곳이다.

CCTV 설치 지원은 시가 지난달 24일까지 안전인증제 참여 민박을 접수한 결과 전체 1397곳 중 5.9%(283곳)만 신청해 관심이 낮았기 때문이다. 지난 2월 도내 한 게스트하우스(농어촌민박)에서 발생한 여성 살인사건이 계기가 돼 전국에서 첫 도입한 농어촌민박 인증제는 이용객의 안전을 확보하고 민박의 경쟁력도 높여주는 취지

만 인증 조건이 까다로워 현 상황이라면 도입 취지를 살릴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안전인증을 받으려면 기본시설, 안전관리, 범죄예방, 법규준수, 위생관리 등 4개 분야에서 20개 항목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하지만 인증받아도 혜택은 관광진흥기금 우선 알선과 시·관광공사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 정도여서 사업자 입장에서 큰 매력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가 추진하는 CCTV 설치사업은 설치비의 50%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사업주가 경제적 부담을 느끼는 CCTV 설치비의 일부를 지원해 이용자의 범죄발생 우려를 해소하는 취지로, 올해 민박 전수조사에서도 CCTV 설치를 희망하는 곳이 적었다.

시 관계자는 "농어촌민박의 까다로운 인증조건에 비해 인센티브가 낮다는 반응"이라며 "당초 올해 1차 추가경정예산에 사업비를 확보하려 했지만 반영되지 않아 내년 예산에 편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미숙기자 ms@ihalla.com

# 양양경 서귀포시장 10일부터 읍면동 방문

### 현안 관련 시민 소통 나서

양양경 서귀포시장이 17개 읍면동을 방문해 시민과 소통에 나선다.

시는 오는 10일부터 19일까지 관내 17개 읍면동을 순회 방문해 대중교통체계 개편과 청년일자리 창출 등 민선 7기 도정의 중점추진 사항을 공유하고, 읍면동 현안과 관련한 시민 소통에 나선다고 6일 밝혔다. 지난 21일 취임후 시 최대 현안인 제2공항 예정지 성산읍 7개 마을과 민군복합항광미항 건설로 갈등을 빚는 강정마을 방문이 이 후속 행보다.

일정은 오는 10일 대륜동과 대정읍을 시작으로 매일 2개 동과 읍면 회의실에서 이·통장과 주민자치위원장 등

지역단체장, 1차산업 종사자, 귀농귀촌인과 다문화가정 등 각계각층의 주민을 만나 지역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 지역 발전을 위한 토론의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특히 이번 주민대화 현장에 직접 참여하지 못하는 시민들을 위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참여가 가능하도록 페이스북(<https://www.facebook.com/Seogwiposicheong>)으로 생중계할 예정이다. 댓글 기능을 활용한 건의나 제안도 가능하다.

댓글에 대해서는 서귀포시 홈페이지 주민 건의사항 공개 페이지(<http://www.seogwipo.go.kr/communication/citizen.htm>)에서 일괄 답변할 예정이다.

문미숙기자

# 생애 첫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제주특별자치도는 생후 6개월~12세 어린이 중 생애 첫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하는 어린이에 대해 오는 11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가까운 병원에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진행한다.

생애 첫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하는 어린이는 4주 간격으로 2회 접종이 필요하기 때문에 9월 11일부터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기 접종력이 있어 1회 접종을 하는 어린이는 유행기간의 면

역력 유지를 고려해 10월 2일부터 시작한다. 대상자는 생후 6개월~12세 어린이(2006년 1월 1일~2018년 8월 31일 출생)이다.

예방접종 지정 의료기관은 총 104개소(제주시 76, 서귀포시 28)이며, 주소지에 관계 없이 어느곳에서나 무료접종이 가능하다. 무료접종이 가능한 가까운 지정의료기관은 보건소에 문의하거나 예방접종도우미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폰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표성준기자 sjpyo@ihalla.com

# “제주 블록체인 특구 사회적 합의가 우선”

### 블록체인 특구 전문가 토론회 김형주 진흥협회 이사장 제안

제주특별자치도가 블록체인 특구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우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고 부산과 강원도 등 다른 지자체와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김형주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 이사장은 6일 오후 제주국제대학교 창업보육센터 3층 세미나실에서 열린 '제2회 제주경제 Focus-제주 블록체인 특구 성공적 추진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에서 '제주의 블록체인 산업생태계 구축을 위한 정책방향 제언' 발제를 통해 "현 정부에서 블록체인·암호화폐를 규제하고 있는 만큼 제주도정에서 비정치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 같이 제안했다.

그는 이어 "정부의 블록체인과 가상화폐 분리 인식이 사라지기 전에는 블록체인 산업과 산학연클러스터 조성 및 정서적인 여건 마련이 필요하고, 현 단계에서는 문제발생시 사후 규제하는 샌드박스식 규제를 원칙으로 하는 규제프리존 조성, 특구내에서 획기적



6일 오후 제주국제대학교 창업보육센터 세미나실에서 제2회 제주경제 Focus-제주 블록체인 특구 성공적 추진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가 열렸다.

인 규제 및 세계개척으로 투자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에 따라 "제주특별법 등 법규 정비를 통해 우선 블록체인 산업 특구를 명문화하고 제주 4차산업 모태펀드 조성 지원 마련, 블록체인 산업생태계 조성 및 대학·연구소와의 연계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또 "국내 ICO불허로 인해 한국 블록체인 산업 생태계 붕괴와 높은 해외제단 유지비용, 기술백서 제출로 인한 산업정보 및 기술해의유출 가능성, 고급인력 해외유출, 해외 투자의 유입 실패로 인해 국내 4차 산업혁명이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 법률지

원단 한서희 변호사는 이날 '제주 블록체인 특구를 위한 법제도 구축방안'을 통해 정부의 블록체인·암호화폐 규제 조항을 삭제해 ICO를 진행하고 있고 카카오페이 블록체인 개발 자회사인 그라운드 X를 일본에 설립해 연내 블록체인 개발을 위한 카카오페이 3.0시대 전략을 발표했으며, 네이버는 자회사인 라인파이낸셜을 일본에 설립하고 일본 정부에 암호화폐 거래 허가를 신청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블록체인 특구 조성시 블록체인 및 핀테크 기업의 유치 확대, ICO를 통한 자본유입 유도, 일자리창출, 아시아 디지털 핀테크, 블록체인 기술 금융 허브, 블록체인 산업 규모 의 경제로 인한 기술선도가 이뤄진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는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제주스타트업협회·제주국제대학교 핀테크경영학과가 공동으로 주최했다.

고대로기자 bigroad@ihalla.com

## 2018 문화재지킴이 활동 3차 기본교육 안내

□ 일 시  
2018. 9. 16(일) 09:00~13:00

□ 장 소  
신제주 설문대여성문화센터(8시 50분까지 등록) (8시 50분까지 등록) (8시 50분까지 등록)  
조설대 주변(문화재지킴이 체험활동)

□ 내 용  
문화재지킴이 기본교육 및 체험활동

□ 대 상  
청소년·일반인·가족

▶ 주 최 : 문화재청, 한국문화재지킴이단체연합회  
▶ 주 관 : 사단법인 문화지기(제주문화재지킴이)

▶ 참가신청 : (봉사활동 4시간 부여)  
- 청소년자원봉사센터(<http://dovol.youth.go.kr>) 로그인 후 신청  
- 홈페이지 <http://moonhwazigim.com> 자유계시판  
- 현장접수

※ 추가 교육일정 - 4차 : 10월21(일)

### 사단법인 문화지기

(대표 이 재 삼)

어제를 담아 내일에 전합니다.

## 리모델링의 선두주자

# 濟(濟) 리모델링

辛(辛) 一(一) 祚(祚)

## 누수탐지·방수

신축/증축/리모델링/화장실 리모델링  
아파트/단독주택 전채 리모델링/지붕개량/옥상방수/페인트공사/창문/도어문/대문 교체  
불박이장/싱크대/신발장/도배/장판  
물당 시공

### 책임시공, A/S견적무료

정성을 다하는 직접시공. 혼을 담은 책임시공

주소 | 제주시 진서로1길 11-5

친절 064.742.6234  
문의 010.7599.6234

## 제2회 2018 청정제주의 맛을 담은 제주향토음식평의회 & WACS국제요리경연대회

2018. 9. 8.(토) 제주한라대학교 금호세계관 1층  
한라컨벤션홀 전관 및 서양요리 호텔조리과 조리실습실

제주향토식재료를 이용한  
제주향토음식평의회 및 WACS국제요리경연대회가  
9월 8일 오전 8시 ~ 오후 18시까지  
제주한라대학교 컨벤션전관에서 펼쳐집니다

- \* 무료입장
- \* 무료시식
- \* 세계적수준에 제주향토음식전시관람
- \* WACS세계조리사연맹 국제요리경연대회출품요리관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시상계획

- 일 시 : 경연대회 당일 심사 완료 후 일정표에 의함.
- 장 소 : 제주한라대학교 금호세계관 1층 한라컨벤션홀 전시장
- 시상내역 : 상장 및 상금, 메달

주최 **Jeju** 제주특별자치도  
주관 (사)한국조리사협회제주특별자치도지회  
후원 (사)한국조리사협회중앙회  
제주한라대학교 Nestle  
한국요리산업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사)한국바다세프협회